

고 있었고 5. 19. 이후 외신이 광주시민들의 분노가 계엄군의 학살만행으로 인한 것임을 보도하여 사태 악화의 원인이 계엄군에게 있음을 알았다.

미 국방부도 5. 19. <광주 학생소요>라는 비밀전문으로 적어도 시민 10-15명이 희생당하였음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글라이스틴은 5. 21. 오전 이회성 계엄사령관에 의해 결정되어 16:00경에야 각 부대에 명령된 공수부대 광주 외곽 철수와 도로차단 및 광주교도소 경비계획을 이미 그 날 09:56에 미 국무부 비밀전문에 기재할 정도로 신군부의 광주학살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글라이스틴은 5. 21. 미 국무부에 “대규모의 폭도가 광주를 일시적으로 장악하여 정부 당국이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였다, 군부가 상당한 무력을 사용해서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신군부의 만행에 대한 광주시민의 정당한 항거를 폭동으로 왜곡보고하여, 미 행정부로 하여금 신군부의 강경진압에 대한 지지입장을 견지하도록 하고, 광주학살 전후를 통하여 군투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입장을 신군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신군부로 하여금 광주학살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컴은 5. 20. 한국군 관계자로부터 20사단을 원래의 목적과 달리 광주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광주로 투입해도 되겠느냐는 문의를 받고, 20일 밤까지 특전사의 학살만행이 계속되고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 않아 군대의 추가투입이 불필요하였음을 알면서도, 글라이스틴 및 워싱턴에 있는 상관들과 협의하여, 글라이스틴이 광주투입에 동의하라고 지시하자 “미리 짝을 잘라버릴 필요가 있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한국군대와 협조하여” 신군부에 동의의사를 전하였다.

위컴은 또한 5. 21. 글라이스틴과 주한미군에 자체의 내부경계태세를 갖출 것을 협의하여, 주한미군에 데프콘(DEFCON) 3 경계령에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폭동진압훈련을 함으로써 신군부와 공동으로 광주학살을 실행하기 위하여 철저히 대비하였다.

3. 광주학살 2 : 5. 22.- 27.

(1) 고립작전과 최후 진압

발포에 격노한 시민들의 저항에 밀려 광주 시내에서 물러난 신군부는, 광주에 재진입하기 전까지 시위 확산을 막고 광주시민의 생활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를 외부로부터 무력으로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언론으로 하여금 사실을 왜곡보도하게 함으로써 광주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선화하였다.

물리적 고립작전의 결과 광주 시외로 통행하던 시민들이 무차별 살상당하였고 광주에는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턱없이 모자라고 각종 의약품이 고갈되어 부상자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생필품이 부족하였으나, 광주 시민은 놀라운 도덕적 자각과 공동체 의식으로 줄을 지어 헌혈하고 매점매석을 하지 않으며 범죄 한 건도 없이 이 위기를 견디어냈다.

신군부는 광주학살 초기 동아일보와 전남매일 등 광주상황 보도를 검열삭제하는 등 이에 대한 언론보도를 일체 금하다가, 광주에서 일단 물러나기로 결정한 21일 오후부터 광주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광주상황에 대한 보도를 허용하면서 계엄사령부의 '광주사태발표'를 통해, 각 언론이 "서울을 이탈한 학원 소요 주동학생 및 깡패 등 현실 불만 세력이 대거 광주에 내려가서 공수부대가 시민을 대검으로 찢러 죽이고 몽둥이로 시민의 머리를 때려 눈알이 빠지고 머리가 깨졌다는 등의 사실무근의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려 소요가 악화되어 극심한 난동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허위왜곡보도하게 하였다.

신군부는 5. 22. 아침 '김대중씨에 대한 중간수사내용'을 발표하여 김대중을 용공 좌익 폭력혁명론자로 매도하고 김대중이 5월 학생시위를 배후 조종하였다고 하여 광주항쟁을 이와 연계된 불순분자에 의한 폭동으로 연결시키려 하였으며, 5. 24.에는 광주 시위를 무장폭동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5. 20. 북한에서 남파되었다는 간첩을 체포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북한의 위협을 꾸며냈다.

계엄사령부는 5. 23. 오후 계엄군의 행동조치결과를 발표하면서 "난동자들이 총격을 가하더라도 발포를 억제하고 전단 등을 활용한 선무활동을 벌여왔다. 군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전 국민이 공동노력을 경주하자"고 하여 일간지에 보도하게 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하였고, 전두환은 5. 24. 신문사 편집국장들을 만나는 등으로 언론통제를 강화하여 광주항쟁에 대한 왜곡보도만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광주데모사태 닷새째, …행정 완전 공백상태 …데모대가 공포 쏘자 시민은 귀가”(동아일보 5. 22.자), “폐허 같은 광주데모 6일째, 자극적인 소문이 기폭제”(조선일보, 5. 23.), “시위선동 간첩 검거, 목포잠입 기도, 군중에 먹일 환각제 소지, 바리케이드 너머 텅 빈 거리에는 불안감만 …무정부상태 광주,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들”(조선일보, 5. 25.), “광주 시민들은 더 이상의 유혈사태나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한시바삐 수습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으나 과격한 행동을 계속하는 일부 청년들이 있어 수습이 늦어지고 있다”(동아일보, 5. 26.)의 보도가 계속되었다.

TV는 시위대가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돌에 맞은 공수대원이 절룩거리며 걷는 화면만을 내보냈고, 광주 시내에는 “폭도들에게 경고한다”, “무기를 버리고 자수하라”, “선량한 시민들이 폭도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전단이 떨어졌다.

또한 유병현 합참의장은 5. 21. 위컴에게 “광주 시위대가 사람을 트럭에 실어 북쪽으로 올려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시위가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번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5. 25.에는 “인민재판과 즉결심판이 열려 선량한 시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하여, 광주상황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전하였다.

한편 미국의 협조를 얻어 20사단을 추가투입하는데서 나아가 미국으로부터 항공모함과 조기경보기를 지원받으며 이를 위해 며칠간 작전실시일자를 늦추기로 미국과 협의하기까지 하였던 신군부는, 5. 27. 새벽 드디어 광주시민의 전면적 애국투쟁을 진압하였다.

(2) 미국의 공모

클라이스틴은 5. 22. 박동진 외무장관을 만나 사태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을 미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하여 신군부의 유혈진압작전을 지지하고, 같은 날 09:42 미 국무부에 <백악관 안보장관특별대책회의 관련 메모>라는 전문을 보내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 한 적어도 앞으로 이틀 간은 군대가 다시 광주로 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권위있는 당국자가 우리에게 통보해왔다”고 보고하는 등 신군부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22:00 경 미 국무부에 보낸 비밀전문에서 “광주 폭도 수는 15만명으로 증가했고, 광주는 완전히 공포의 현장으로 변했다”고 하여 광주시위의 진압필요성을 미 행정부에 역설하였다.

머스키는 5. 23. 새벽(미국시간 5. 22. 16:00경부터 17:15경까지) 백악관 상황실에서, 워렌 크리스토퍼 국무차관, 홀부르크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 로버트 리치 국무부 한국과장, 브라운 국방장관, 데이비드 맥기피드 국방부 국제안보담당차관보, 닉 플레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 데이비드 존스 합참본부 대장, 존 베시 합참본부 대장, 존 푸스데이 합참본부 중장, 터너 중앙정보국 국장, 존 홀드리지 중앙정보국 중국 및 동아시아 담당관, 브레진스키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도널드 그레그 국가안보회의 특별보좌역 등 한반도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주요 관리들을 모두 소집하여 국가안보회의의 산하기구인 고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사태에 관한 종합대책을 검토하면서,

우선적 과제는 한국 당국이 훗날 큰 불안정을 배태할 씨를 뿌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병력을 사용해 광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병력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광주진압작전이 장시간 해결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조기경보기 2대를 오키나와에 급파하고 필리핀 수빅만에 정박중인 항공모함 코럴시호를 한국 근해로 출동시키기로 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5. 23. 06:00 신군부의 확대계엄회의에 “주영복 국방장관과 유병현 합참의장의 노력에 의거하여 미국이 협조적이고도 적극적이다”라고 알리고 고위정책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전하여 신군부를 고무하고, 실행계획을 알리고 진압일자를 연기하도록 하였다.

5. 22. 광주에서는 과잉진압 인정과 보복금지 등을 군부에 요구하였고, 23. 광주에서는 90% 가량 무기가 회수되고 질서가 회복되어갔으나, 호딩 카터 미 국무부 대변인은 5. 23. “카터 행정부는 남한에서 안보와 질서 회복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정치적 자유화에 대한 압력을 늦추기로 하였다”고 하고, 5. 27. “우리는 한 주요한 도시에서 전체적인 무질서와 혼란상태가 무한정하게 계속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브라운은 5. 23. “한국사태와 관련하여 북한의 부대이동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없다”고 하고, 호딩 카터는 5. 27. “한국사태가 공공연한 폭력단계로 악화된 이후 북한측의 군사력 증강조짐은 없다”고 공표하고서도, 북한의 오판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5. 23.경 미국이 보유한 조기경보기를 오키나와에 급파하고, 필리핀 수빅만에 정박중이던 50대 이상의 전폭기를 실은 5만톤급 항공모함 코럴 시호를 부산항 인근해역에 주둔시키고 일본에 있는 미드웨이호를 한국으로 출항시켰으며, 위컴은 5. 22. 주한미군의 경계태세를 데프콘 3으로 한 단계 높였다.

글라이스틴은 5. 23.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를 만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표하고, 한미연합사 작전통제 하에 있는 한국군을 광주소요진압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군의 지휘하에 두는 등으로 미국은 질서 회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하여 광주 학살 작전을 적극 고무하였다.

글라이스틴과 위컴은 5. 23.경 유병현 합참의장으로부터 “군대가 앞으로 1-2일 내에 광주에 재진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미국의 항공모함 진주 등의 작전준비를 위하여 진입일을 연기하도록 하였다.

위컴은 5. 23. 12:00 33사단 1개 대대를 광주소요진압작전에 투입하는 것을 승인하고, 5. 25. 15:00경 유병현 합참의장으로부터 군대 이동이 있을 경우 미국에 사전통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5. 26. 14:00경 유병현으로부터 26일 자정을 기해 광주로 진입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5. 26. 16:40에는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 로버트 세네월드 소장이 육군본부 작전교 육참모부장 김재명 소장으로부터 “27. 00:01 이후 진압작전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통보받았다. 마이클 아마코스트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5. 26. 밤 “지금의 상황에서는 질서확립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하여 재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항쟁지도부는 5. 24.경 글라이스틴에게 휴전을 주선하여 유혈사태를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글라이스틴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가 없으며 공식통로를 통해 접수된 요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진압 몇시간 전에도 광주 도청에 있는 한 사람이 글라이스틴에게 제엄사와의 중재에 나서달라는 전화요청을 하였으나, 글라이스틴은 “그러한 역할이 미국대사에게 합당치 않으며, 또 한국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5. 27. 새벽, 코럴 시호가 6척의 구축함을 거느리고 한국 해역으로 진입하였고, 미국에서 오키나와로 급파된 2대의 조기경보기가 한국 영공을 선회하는 가운데 신군부의 광주재진입작전이 실행되었다.

(2) 신군부의 진압작전

① 5. 22. : 고립

5. 21. 밤 시민군은 도청에 진입하였고, 5. 22. 광주시민들은 시민·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항쟁을 보다 조직화하였으며, 사태 수습 전에 군을 투입하지 말 것과 과잉진압을 인정할 것 등에 관하여 계엄본소장과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광주를 외부로부터 고립시키고 타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미 5. 18.경부터 전화와 우편 등 통신수단과 시외로 통하는 교통수단을 모두 두절시키고 22일부터는 광주 외곽으로 가는 통행로에서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광주를 고립시켰다. 고립봉쇄작전의 주력부대는 21일 새벽부터 광주에 투입된 20사단이였다.

20사단 61연대 제2대대는 5. 21. 16:00경부터 광주-나주-목포간 국도를 차단하고 광주로 가는 모든 통행로를 봉쇄하였다.

5. 22. 01:10경 61연대 1대대 1중대는 광주-화순간 도로를 차단하고 효천역 부근 야산에 매복하였다가, 버스 5, 6대에 탑승하여 광주상황을 알리기 위해 나주, 목포 등에 갔다가 돌아오는 차량시위대에게, 랜턴 불빛만을 보고 집중적인 총격을 가하였다. 군은 야산에 매복하여 시위대가 총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발포하였고, 시위대는 5, 6정의 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응사할 겨를도 없이 운전사가 사망하여 버스가 언덕에 처박힌 뒤 항복의 표시로 손을 들고 일어서고 옷을 흔들었는데도 사격이 계속되어, 강복원(남, 20세) 등 10여명이 사망하였다.

09:00경 효천역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20사단 병력은 송하동 연탄공장 앞길에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를 빠져나가던 4명의 민간인에게 아무 이유없이 총격을 가하여 왕태경(남, 26세)을 사살하고, 17:30경에는 부근 인성고등학교 앞에서 박재영(남, 25세)을 사살하였다.

10:00경 광주교도소 앞 고속도로 진입로를 봉쇄하고 있던 3공수여단 병력은, 광주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채소장사를 하던 김성수가 가족과 함께 진도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다가 거절당하여 차를 돌려 광주로 되돌아가려하자, 뒤에서 김성수 일가에게 총격을 가하여, 김성수의 처 김춘아(여, 43세)를 사망하게 하고 딸 김래향(여, 5세)을 하반신마비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18:00경 육군통합병원 앞에서 시위대와 대치한 20사단 62연대 제2대대 병력은, 군부대 요원의 치료혜택을 위하여 통합병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전차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밀어내면서, 병원에 인접한 화정동 주택가에 무차별로 총을 난사하여 집 안방에 있던 이매실(여, 68세)과 집 옥상에서 총격전을 구경하던 함광수(남, 16세) 등 8명의 시민을 총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② 5. 23. : 총정계획

5. 23. 광주 시민·학생수습대책위원회는 무기 200여정을 계엄분소에 반납하는 등 협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5. 23. 08:50 계엄사령관실에서 진압작전에 대한 회의를 열어, <진교사 총정계획>을 확정하여, 광주에 대한 무력재진압을 확고히 결정하였다.

신군부는 이 계획에서 광주 상황을 “광주지역 난동자 중에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라고 자처하는 자 20여명이 있는 등 복괴의 침투를 의심케 하는 실태임. 난동자측 대표와의 협상시도는 그들의 시간을 벌자는 술책에 함입하는 결과가 될 것임. 그들은 현재 호를 구축하며 장기 저항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광주시민은 사실상 현재 인질상태로서 일익 폭도측에 가담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현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선량한 시민의 대정부 원성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고로 작전은 조기에 착수되어야 함”이라고 보아, 처음부터 협상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였다. 또한 야간에 공수부대가 먼저 진입하여 타격 소탕한 후 20사단이 이를 인계하기로 계획하여, 공수부대와 20사단의 협력작전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신군부는 이 회의에서 “5. 25. 02:00이후 소위 폭도소탕작전을 의명 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다름 아닌 “한미 협조관계를 위한 시간소요” 때문이었다.

신군부가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이러한 무력진압을 계획함에 따라, 고립봉쇄작전은 이날도 시민에 대한 잔혹한 학살로 이어졌다.

5. 23. 09:00경 11공수여단은 광주-화순간 국도변에서 매복하던 중 녹동마을 입구 화약고 앞 도로변에서 미니버스를 총격하여 화순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던 고영자(여, 22세) 등 11명을 사망하게 하고,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에게까지 총격을 가하여 유춘학(남, 고교생)에게 흉부 관통상을 입혔다.

또 14:00경 11공수여단 62대대는 광주 동구 주남마을 부근 광주-화순간 국도를 차단하던

중 시위대와 시민이 승차하고 광주 방면에서 화순방향으로 진행하던 미니버스를 정차시키려다가, 운전사가 정차하면 죽을 것 같아 계속 달리자, 충격을 가해 타이어를 터뜨려 버스를 세우고 집중사격하였다. 탑승자들이 손수건을 흔들며 쓰지 말라고 애원하였으나 공수부대원들은 사격을 계속하여 박현숙(여, 16세) 등 15명을 살상하고, 부상당한 남자 2명을 즉결처분으로 총살하였다. 만행을 저지른 공수부대원들은 시신마저 도로변에 거적으로 덮어놓거나 주변지역에 아무렇게나 뒤섞어 방치하고, 인근 산에 암매장하기까지 하였다.

해남에 주둔하고 있던 31사단 93연대 2대대는 해남-완도간 국도변의 부대 정문 부근 우슬재와 복평리에 매복하다가, 5. 23. 05:30경과 10:00경 두 차례에 걸쳐 시위대와 총격전을 벌여 그 과정에서 박영철(남, 27세) 등 20여명을 사망하게 하고, 이 중 수 명의 시체를 부대내에 가매장하였다.

군의 살상은 그 방법과 형태에서 국민의 군대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었고, 그 잔혹성에서 이미 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존엄을 완전히 유린하는 것이었다.

③ 5. 24. : 참혹한 희생

5. 24. 오후 시민·학생수습대책위원회는 계엄분소를 방문하여 계엄당국과 계엄군의 시가진입 금지, 공수부대의 과잉진압 인정, 연행자 석방, 피해자 보상 및 치료, 방송재개 및 사실 보도 촉구, 시외 통행 허용, 사태수습 후 처벌금지 등에 협의하고 총기의 절반 가량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이미 무력재진입을 결정하고 그 실무책임자인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미국측의 해·공군이 증원될 때까지 작전을 유예하라”고 지시하였다. 25일 02:00 이후에 의령 진압작전을 개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3, 7, 11 공수여단은 24일 자기의 봉쇄구역을 20사단에 넘겨주고 일제히 광주비행장에 집결, 출동대기태세에 돌입했다. 2군 사령부는 전교사에 광주-장성간 병참선을 개통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신군부는, 위킵에게, “계엄사가 광주시에 재진입, 탈환하기 위한 계획을 완성했다”고 전하였다.

공수여단이 재진입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남 일원으로 통하는 국도변에서는 이들에

의한 잔혹한 양민학살이 자행되었다.

5. 24. 13:30경, 11공수여단이 그간의 주둔지인 주남마을을 출발하여 육로로 광주 송정리 비행장으로 이동하던 중, 그 선두에 있던 63대대가 광주-목포간 도로에 접한 광주 서구 진월동 소재 효덕초등학교 삼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트럭을 타고 그 곳에 와 있던 시민군 10여 명이 마을 주민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는 것을 발견하고 장갑차를 전진시키며 캐리버 50으로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그러자 뒤따르던 병력들이 도로 주변 민가에 일제히 총기를 난사하여, 효덕초등학교 뒤 놀이터에서 놀면서 공수부대의 차량대열에 손을 흔들기까지 하였던 전재수(남, 11세)가 놀라 도망가다 고무신이 벗겨져 이를 주으려고 돌아서는 순간 공수부대의 집중사격에 쓰러져 사망하고, 운동장에서 놀던 김문수(남, 11세)는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부근 원제마을 저수지에서 친구들과 놀던 방광범(남, 12세)은 총격에 놀라 저수지 수문 쪽으로 피하는 순간 뒷머리에 총을 맞고 즉사하였으며, 주민 노득규는 집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오른팔과 오른쪽 옆구리에 총탄을 맞았다. 논일을 하던 김영복(남, 56세)은 오른쪽 팔과 무릎에 관통상을 입었으며, 블록공장에서 일하던 최철진(남, 47세)은 아랫배를 관통당하여 쓰러졌다.

13:55경 11공수여단의 선두에 있던 63대대가 효천역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같은 날 오전에 20사단 61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 병력이 위 63대대 병력을 시민군으로 오인하여 선두 장갑차와 후속 트럭에 90밀리미터 무반동총 4발을 명중시키는 등 집중 사격을 가하여 공수부대원 9명이 사망하자, 63대대 병력은 이에 대한 분풀이로 마을 일대를 수색하였다. 이들은 권근립(남, 24세) 등을 시위대로 몰아 구타하며 끌고 나가, 대검으로 찌르고 그 자리에서 사살하였다.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총소리에 놀라 하수구에 몸을 숨긴 박연옥(여, 49세)은 공수부대가 총을 들이대고 나오라고 하자 공포에 질려 그대로 있다가, 공수부대가 하수구 안으로 총을 난사하여 즉사하였다.

군의 살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광폭하여졌다. 이 시기 광주시내에서 대규모 살상이 없었을 뿐, 군은 협상에는 아랑곳없이 광주를 철저히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언론을 통하여 진실을 왜곡 전파함과 동시에, 시 외곽에서 마치 전쟁시기 민간인학살을 연상시키는 집단학살을 서슴지 않았다. 봉쇄작전에 동반된 위 학살행위는, 신군부가 외곽도시로 통행하는 차량시위대를 살상함으로써 광주를 철저히 고립시켜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아무 이유없이 살상함으로써 광주시민을 죽음의 공포로 위협하여 시민의 통행 및 진상 전파로 신군부의 언론통제의 실상이 드러나는 사태를 막아, 광주시위를 섬멸하고

집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수단이었다.

④ 5. 25. : 재진입준비

시의곽에서의 학살 소식이 광주 시내에 알려지면서, 5. 25. 광주지역 재야 민주인사들이 새로이 도청 수습위원회에 참여하고, 청년학생들은 새로운 항쟁지도부를 구성하고 계엄군의 재진입에 대비한 대책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이 시기 광주에 재진입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미 항공모함 진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군부는 5. 25. 11:49 “27일 00:01 이후 진압작전을 실시한다”는 ‘상무총정작전지침’을 이희성 계엄사령관 명의로 전교사에 하달하였다.

이 지침은 “폭도들은 상당수 무기를 탈취하여 주요 도로변에 기관총을 배치하고 각종 장애물을 구축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 양민을 협박하며 난동중에 있다. 계엄군은 양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족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무작전과 봉쇄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성을 되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 지역내 폭도구성이 대부분 흉악범 및 불량배로 되어 있고 ... 치안공백상태의 장기화는 불순분자 또는 복귀 무장공비의 침투 가능성이 증대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신군부는 애초부터 자신들의 만행과 학살극을 인정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며칠 동안 재진압을 치밀히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였을 뿐이었다.

봉쇄로 의약품도 생필품도 부족하였으나 시민들의 높은 도덕적 자각과 참여로 질서있는 공동체가 된 광주였으나, 신군부의 학살로부터 벗어나기에는 광주시민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

⑤ 5. 26. : 죽음의 행진

5. 26. 05:30, 20사단이 탱크를 앞세우고 각방면에서 광주 시내를 향해 전진하였다. 이는 무력진압의 준비이자 광주시민에게 심리적 공포를 주는 것이었다. 죽음을 각오한 17인의 재야수습위원들이 금남로에서 농촌진흥원 앞까지 약 4km를 시민들과 함께 걸어 계엄군의 탱크 앞까

지 이르렀다. 이들의 행진은 탱크를 전날 밤의 위치로 후퇴시켰으나, 바로 이 시기 신군부는 진압을 몇 시간 앞두고 마지막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신군부는 5. 26. 10:30 전교사령관실에서 20, 31사단장, 3, 7, 11공수여단장, 전교사 예하 보병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압작전 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각 공수여단별로 특공조를 편성하여 도청진압은 3공수여단 특공조가 맡고, 그 외 YWCA, 전일빌딩 등 시민군의 주요 거점 모두를 공수부대 특공조가 맡고, 목표지점 점령 후 20사단에게 인계하기로 결정하였다.

신군부는 이날 오후 동안 총기와 수류탄을 추가 지원하고 18:00 비행장 격납고에서 진압작전 예행연습을 마쳐 재진입작전 준비를 모두 끝냈다.

항쟁지도부는 시민군을 개편하고 기동타격대를 만드는 등 계엄군의 재진입에 대비하였으나, 쫓기대회가 열리는 도청앞 광장 상공에는 군용헬기가 “총을 놓고 집에 돌아가십시오. 총을 들고 있으면 폭도로 오인됩니다. 군은 곧 소탕에 나섭니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킵시다.”라고 하여 소탕작전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전단을 살포하였다.

쫓기대회가 끝난 후 도청 앞에는 죽음을 각오한 청년들과 시민군만이 남았다. “물론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저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도 누군가가 여기에 남아 도청을 사수하다 죽어야 합니다.”

⑥ 5. 27. : 상무층정작전

열흘 동안 타오른 항쟁의 불길은 마침내 공수부대의 재투입으로 꺼져갔다.

신군부는 무려 2만여명의 무장병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총공세를 벌였다. 신군부는 “작전 실시간에 공군기의 무력시위 지원을 위해 제1비행단과 전교사간에 협조지원체제를 조치”하고 전차 18대, APC 9대, 지휘용 500MD헬기 1대, 무장 500MD 4대, 수송용 헬기 UH-1H와 코브라 무장헬기 AH-1J 2대를 동원하는 등 엄청난 장비를 총동원하였다. 한국 영해에는 미국이 보낸 항공모함 코럴시호가 대기하고, 영공에는 미국이 오끼나와로 급파한 조기경보기 2대가 순회하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진압작전을 보호하였다.

3공수여단 특공조 11대대 1지역대는 5. 27. 04:00경 전남도청 후문에 도착하여, 도청 후문을 넘어 최후 항쟁을 결의하고 남아 있는 시민군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진입하였다. 공수대원들은 항복하는 사람을 밟고 서서 인기척이 나는 곳에 무조건 사격하고, 항복하라고 해도 나오지 않으면 수류탄을 던져 넣었으며, 손을 들고 나오라는 명령에 따른 김영남(남, 16세)에 게까지도 총격을 가하였다. 04:50경 20사단 61연대 제1대대가 뒤따라 도청으로 들어가, 05:21경 전남도청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들은 200명 가량을 체포하여 상무대 영창으로 끌고 갔으며, 최소한 30명 이상을 살해하였다.

7공수여단 특공조 33대대 8, 9지역대는 05:06 시민군 2명을 사살하고 광주공원을 점령하고, 11공수여단 특공조 61대대 4중대는 04:46 제1목표인 전일빌딩과 관광호텔을 저항 없이 점령하고, 06:20 YWCA 2층에 M203유탄발사기로 세 발의 총류탄을 발사하여 시민군 3명을 사살하고 29명을 체포하였다. 20사단 62연대 제2대대 6, 8중대는 04:30경 계림초등학교 앞에서 시민군을 공격하여 1명을 사살하고 15명을 체포하였다.

신군부는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전남도청 등을 다시 장악하려면 무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를 제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와의 교전이 불가피하여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됨을 알고,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고 재진입작전을 강행하였으며, 나아가 항복하는 사람에게까지 총격을 가하는 등 무차별적인 살상을 저질렀다. 당시 신군부는 광주시위를 조속히 제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즉 집권에 성공할 수 없는 중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는 데에 저항하거나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은 신군부에게 있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수단이었다.

신군부는 이 작전을 “주도면밀한 계획과 대담한 실시로 시민의 희생없이 완수한 작전으로서 사상 유례없는 성공한 작전이었다”고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나 이 유혈진압으로 집권한 전두환은, 1996년 드디어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신군부의 핵심들 역시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역사는 광주시민의 희생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4. 광주학살 이후 미국의 은폐 기도

5. 21. 미 국방부는 한국에 있는 미군 관련 정보원으로부터 <광주 상황 진전>이라는 비밀 전문으로, 21. 19:30경 수집된 “한미연합사 병력을 광주소요진압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미국의 결정은 광주에서 반미감정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보고받았는데, 이 당시 20사단은 광주에 이동하였을 뿐 아직 광주 시내에 본격 투입되기 전이었을 정도로 미국은 자신의 행동이 반미감정을 촉발할 것을 우려하여 진실을 은폐하고자 기도하였다.

글라이스틴은 또 5. 23. 09:03 <미국 입장에 대한 한국 내의 가능한 반응>이라는 전문을 미국무부에 보내 “현 상황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군대의 이동을 미국이 승인한 것은 아주 비판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미군들이 한국문제에 대한 언급에서 극도로 조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 관리들이 공식 언급을 할 때에도 앞에서 지적한 범위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것을 희망한다”고 하여, 미 행정부에 반미감정의 확산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이 취한 행동을 은폐할 것을 주문하였다.

위کم은 이에 따라 5. 25.경 미국이 질서유지를 위해 한미연합사 병력의 일부에 대한 지휘권을 한국에 이양하고 실제로 미국이 군사력 사용을 부추켰다는 TBC와 KBS 방송국의 보도를 왜곡이라며 계엄사령부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미국은 1989년 8월, 한국 국회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여전히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된 것을 알지 못했으며 20사단은 공수부대를 대체하여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광주로 투입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광주학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글라이스틴은 위کم은 1999. 12. 발간한 <12.12와 미국의 딜레마>라는 책에서 광주학살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였다.

■ 결론 : 피고인들의 범죄와 미국의 책임

1. 피고인들의 범죄

(1) 피고인 카터는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서 한국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미 행정부에 '체로키'라는 암호명의 고위급 정책결정집단을 만들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최종결정하고 그 실행을 총괄지휘하였다.

피고인 글라이스틴은 당시 주한 미국대사로서 신군부 핵심 요인들과 접촉하고 미 국무부에 한국내 상황을 상세히 알리는 비밀전문을 교환하여 미국의 대한정책수립과 실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한국민의 민주화요구는 반미감정을 촉발시킬 것이어서 진압되어야 한다고 미 행정부에 보고하여 미 행정부로 하여금 신군부에 대한 지지입장을 확고히 하도록 하고, 신군부가 주도한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위کم 한미연합사령관으로 하여금 시위진압을 위한 한국군 작전통제권 이양요청을 승인하도록 하고, 광주학살 발생 직후 광주 시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강경진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위کم은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자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여 한국의 군부와 각 부대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를 미 국방부에 비밀전문으로 알려 글라이스틴과 함께 미국의 대한정책수립과 실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불법적으로 실시되는 것임을 알면서 한국군 해병 제1사단, 보병 제20사단, 26사단, 30사단, 33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에게 이양하여 시위진압에 나서게 하고, 20사단의 광주투입을 승인하고 주한미군에 비상경계령을 발동함과 동시에 미 공군과 해군을 출동시키도록 하였다.

피고인 브라운은 당시 미 국방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국방관련사항을 총괄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국방정보국 전문을 통해 위کم으로부터 한국군 내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대한정책을 수립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백악관 고위정책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 항공모함을 한국 근해에 발진시키고 오키나와에 있는 조기경보기를 한국 영공에 이륙시키며 주한미군에 경계령을 내렸다.

피고인 터너는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세계경찰로서 지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CIA 한국

지부와 미 국방정보국 등을 통하여 한국내 정보를 입수하여 미 행정부의 대한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백악관 고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미 행정부로 하여금 신군부의 강경진압지지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도록 하고 미 공군과 해군을 한국에 급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브레진스키는 당시 미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으로서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여 미국의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대통령의 대한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백악관 고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미 공군과 해군을 한국에 급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크리스토퍼는 당시 미 국무부 차관으로, 국무부 장관인 에드먼드 식스터스 머스키의 총괄지휘 아래 미국의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미 행정부의 대한정책수립과 실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5. 9. 글라이스틴에게 전문을 보내 "우리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비상계획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한다"고 하여, 신군부의 군대투입에 동의한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글라이스틴에게 이를 실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홀부르크는 당시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서 미국의 한국정책을 입안·실행하는 실무를 총괄하면서, 글라이스틴으로부터 받은 한국내 상황에 대한 전문을 토대로 미 행정부가 신군부에 대한 지지입장을 확고히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글라이스틴에게 그 실행을 지시하였다.

(2) 피고인들은 모두, 신군부가 한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군대투입을 계획하였으며 1980. 5. 17. 국무회의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의결은 신군부가 국무위원들을 협박한 결과이고 신군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여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가기관의 헌법상 기능을 정지시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알면서도, 질서회복을 명분으로 군을 동원하여 한국민들을 위협하여 억압하여도 무방하다는 데 신군부와 의사일치되어,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한국을 방위하기 위하여 그 작전통제하에 있는 한국군을 배치·운용하여야 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작전통제권을 남용하거나 함부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거나 이양함으로써 그 휘하 병력을 한국의 정치에 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한미연합사령관의 한국군 해병 1사단, 보병 20, 26, 30, 33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에게 이양하는 방법으로 신군부에 계엄실시에 필요한 병력을 제공하여 내란목적달성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는 이 현장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3) 피고인들은 광주학살 직후 공수부대의 만행으로 시민이 희생당하고 날이 갈수록 신군부의 진압이 더욱 대규모로 잔혹하게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신군부의 강경진압태세가 계속되고 있어 그 상태에서 병력을 추가투입하면 광주시민의 희생이 더 증가될 것임이 명백한데도, 광주시민을 폭도로 규정하여 군대를 동원한 진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만행이 확산되던 5. 20.에 이미 4일 전 수도권 질서유지 명분으로 한국측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보병 20사단을 광주에 추가투입하도록 승인하였다.

피고인들은 또한 신군부의 광주학살이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임을 알면서, 광주시민들의 대치상태로 미루어 무장병력으로 광주에 재진입할 경우 총기발포로 시민의 피해가 확대될 것이 분명한데도, 질서회복을 명분으로 광주시민들을 살상하여도 무방하다는데 신군부와 의사가 일치되어 광주재진입작전의 한미공동준비를 위해 그 실행시기를 협의 조정하여 공모하고, 이에 따라 미 항공모함과 조기경보기를 한국 근해와 오키나와에 급파하고 주한미군에 경계령을 발하여 폭동진압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작전준비를 마친 후, 5. 27. 항공모함을 진주시키고 조기경보기를 출격시켜, 광주시민들을 총격살상한 광주재진입작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이 현장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내란목적살인죄를 공모실행한 것이어서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이 있다.

광주시민에 대한 학살은 정치적, 국민적 집단을 말살할 목적으로 집단구성원인 광주시민을 살해하고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한 행위로서 이 현장 제2조 제2항에 정한 집단살해죄에 해당한다.

광주시민에 대한 학살은 또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의도적으로 행해진 민간인에 대한 살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 국제법규에 위반한

체포와 구금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의 박탈, 고문, 신체의 특정 성적 부위에 대한 위해 등 기타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이 헌장 제2조 제3항에 정한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2. 미국의 책임

(1)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하에 있는 한국군을 한국방위를 위해 배치·운용하여야 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작전통제권을 남용하거나 함부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거나 이양함으로써 그 휘하의 병력을 한국의 정치에 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2.12 군사반란 이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치밀히 준비해 온 신군부가 국민의 민주화요구를 군을 동원하여 강경진압하고 헌법기관의 권능을 파괴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자, 이를 전후하여 한미연합사 통제 하의 한국군 해병 제1사단, 보병 20, 26, 30, 33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에게 이양하는 방법으로 계엄 실시에 필요한 병력을 제공하여 강경진압을 계속하게 하여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미국은 또한 항공모함과 조기경보기를 파견하여 5. 27. 도청진압작전을 신군부와 공모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여 신군부를 지지하고 미 공군과 해군의 무력을 동원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여 이 헌장 제2조 제4항에 정한 내정간섭행위 등을 하였으므로, 헌장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2) 또한 미국의 정부기관과 군의 책임자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피고인들이 위 1항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미국은 이 헌장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3) 나아가 미국은 피고인들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비호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확대 실시에 관여한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집단살해당한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헌장 제3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위 각 행위들에 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광주민중항쟁 사망자 명단

일련 번호	성명	성별(연령)	직업	사망일시 및 장소	사인	비고
1	박현숙	여(16)	신의여고 3	80. 5. 23 14:00경 지원동	총상	23일 주남마을 버스충격 희생자
2	고영자	여(22)	일신방직 여공	80. 5. 23. 09:00경 지원동	총상	앞의주남마을
3	황호걸	남(19)	방송통신고 3	80. 5. 23. 09:00경 지원동	총상	앞의주남마을
4	신원환상	남(20~25)		80. 5. 23. 09:00경 지원동	총상	앞의주남마을
5	백대환	남(19)	송원전문대 1	80. 5. 23. 09:00경 지원동	총상	앞의주남마을
6	전재수	남(10)	효덕국교 4	80. 5. 24. 13:50 효덕동	총상	24일 송암동 희생자
7	윤성호	남(27)	광주통신공사 직원	80. 5. 21 도청앞 총상부상, 27일 전대병원에서 사망	총상	21일 도청앞 밭포 희생자
8	신원불상	남(20가량)		80. 5. 24 효덕동	두부타박상 및 자상	
9	박연옥	여(49)	농업	80. 5. 24 13:20 효덕동 인성고 - 입구교량 밑	총상	24일 송암동 희생자
10	김운수	남(27)	벽돌골장 근무	80. 5. 23 09:00경 지원동	총상	앞의 주남마을
11	신원불상	남(23가량)		80. 5. 23 목포	차량사	
12	박영철	남(27)		80. 5. 23 10:20 해남	총상	
13	김귀환	남(22)	운전기사	80. 5. 23 14:56 해남	총상	
14	정충길	남(40)	경찰관	80. 5. 20 21:40 도청앞	차량사	경찰 사망자
15	김동진	남(48)	농업	80. 5. 22	차량사	
16	이매실	여(68)	무직	80. 5. 22 쌍촌동 집 안방	총상	22일 통합병원 확보작전시 희생자
17	방광범	남(12)	전남중 1	80. 5. 24 효덕동 지수저 득	총상	앞의 송암동
18	김훈례	여(18)	일신방직 여공	80. 5. 24 지원동	총상	앞의 주남마을
19	박민환	남(26)	무직	80. 5. 21 도청앞	총상	앞의 21일 도청
20	이세홍	남(38)	경찰관	80. 5. 20 노동청앞	차량사	경찰 사망자
21	강경용	남(38)	경찰관	80. 5. 20 노동청앞	차량사	경찰 사망자
22	박기용	남(37)	경찰관	80. 5. 20 노동청앞	차량사	경찰 사망자
23	양동선	남(45)	광주고 서부과	80. 5. 27 광주교교 옥상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24	홍성규	남(33)	학사주점 경영	80. 5. 20 가톨릭센터 후문추정	두부타박상	
25	박기현	남(15)	동신중 3	80. 5. 20 계림동 동문다리	두부 등 전신타박상	
26	안병섭	남(22)	운전원	80. 5. 23 08:25 광주교도소 부근	총상	교도소 지역 희생자
27	최승희	남(20)	송원전문대 1	80. 5. 21 도청앞 총상 부상, 13:15에 전대병원 도착, 22일 03:50 전대병원에서 사망	총상	앞의 21일 도청
28	홍인표	남(20)	미술학원생	80. 5. 21 도청앞 광천주조장앞	총상	앞의 21일 도청
29	김병연	남(18)	계수생	80. 5. 21 교도소 부근 브리발	총상	교도소 지역 희생자
30	조사천	남(44)	건축업(목공)	80. 5. 21 금남로 동구청 부근 총상 부상, 14:00 기독교병원에서 사망	총상	앞의 21일 도청
31	나홍수	남(33)	복수	80. 5. 21 도청앞 총격 부상, 17:15 전대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총상	앞의 21일 도청
32	윤제식	남(30)	상업	80. 5. 21 도청앞	총상	앞의 21일 도청
33	정민구	남(25)	일신방직 공무과전기계	80. 5. 22 시의팍 순환중 피격되어 06:15 전대병원 응급실 도착 사망	총상	
34	김호중	남(25)	회사원(공장장)	80. 5. 21 남광주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철수하는 공수 강갑차 충격 부상, 22일 07:15 전대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일련 번호	성명	성별(연령)	직업	사망일시 및 장소	사인	비고
35	황성술	남(19)	시외버스 조수	07:15 전대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36	박병현	남(24)	상업(점원)	80. 5. 23. 07:30경 광산군 동곡면	차량사	
37	오정순	여(53)	무직	80. 5. 23. 효덕동 노대부락 앞산	총상	
38	서만오	남(25)	트럭 운전기사	80. 5. 22. 문화동 동사무소 부근(교도소)	총상	교도소 지역 희생자
39	안병태	남(26)	목공	80. 5. 21. 도청앞 총격부상, 14:00기독병원에서 사망	총상	앞의 21일 도청
40	김안부	남(34)	노동	80. 5. 19. 22:00 구전남양조장 공터	타박상	최초 공식 사망자
41	조남신	남(29)	광주통신공사(전 화사)직원	80. 5. 21 13:00경 도청앞(사무실 부근)진주	총상	앞의 21도청(앞의 7 윤성호와 함께사망)
42	실동선	남(30)	다방종업원	80. 5. 21 광주서앞 다방옥상	총상	앞의 21일 도청
43	김홍기	남(62)	무직	80. 5. 23 16:45 전대병원 응급실	차량사	
44	신원불상			80. 5. 21 장소불상(도청앞 추정)	총상	생존자 이금영씨로 오인
45	노경운	남(20)	페이트공	80. 5. 22 21:15 적십자병원 도착 직전	총상	
46	김광석	남(26)	전대법대3	80. 5. 21 도청앞 부상자 부속하다 총격부상, 21일 16:30 전대병원 사망	총상	앞의 21일 도청
47	이제술	남(41)	전공	80. 5. 21 장소불상(도청앞 추정)	총상	
48	조일기	남(34)	식당 주방장	80. 5. 27 새벽광주공원	전신타박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49	김영선	남(21)	한진공업사 공원	80. 5. 22 18:00 내방동 자택앞	총상	앞의 통합병원 확보작전
50	강정배	남(28)	건축미장공	80. 5. 24 23:00 윤암동 광주변전소앞	총상	
51	김 정	남(21)	선반공 1	80. 5. 21 도청앞	총상	앞의 21일 도청
52	김현규	남(20)	오토바이기사	80. 5. 22 지원동	총상	
53	신원불상	남		80. 5. 22 장소불상	총상	시외곽 추정
54	손옥례	여(19)	여고졸, 쿨업준비	80. 5. 21 장소불상	총상및자상	유방자상 희생자
55	오세현	남(25)	회사원	80. 5. 27 새벽 YWCA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56	박용준	남(24)	YWCA신협근무	80. 5. 27 새벽 YWCA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57	유영선	남(27)	전대2년휴학 (회사원)	80. 5. 27 새벽 YWCA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58	권근립	남(24)	포항공장 노동자	80. 5. 24 15:30경 송하동 집앞노상	총상및자상	24일 송암동 군부대간오인사격시 보복학살
59	김승후	남(19)	공원	80. 5. 24 15:30경 송하동 집앞 노상	총상	위와동일
60	민청진	남(19)	나무판화기능공	80. 5. 21 도청앞 총상 부상, 13:55 전대병원 도착, 5. 25 16:20 사망	총상	앞의 21일 도청
61	임병철	남(24)	운전기사	80. 5. 24 15:30경 송하동 집앞 노상	총상	앞의 권근립과 동일
62	안병복	남(20)	제분사	80. 5. 21 장소미상	차량사	
63	이성귀	남(16)	광주상고 2	80. 5. 24경 추정, 장소불명	총상	
64	장제철	남(23)	이발사	80. 5. 23 지원동(부상자 소송업무)	총상	수습위 참여활동
65	김동수	남(22)	조선대 3	80. 5. 27 도청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66	김종연	남(17)	고입 재수생	80. 5. 27 도청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67	이강수	남(19)	재수생	80. 5. 27 도청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68	박성룡	남(25)	회사원(공장장)	80. 5. 27 도청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69	유동운	남(19)	한신대 2	80. 5. 27 도청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70	안종필	남(16)	광주상고 1	80. 5. 27 도청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71	문제학	남(16)	광주상고 1	80. 5. 27 도청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일련 번호	성명	성별(연령)	직업	사망일시 및 장소	사인	비고
72	윤개원 (상원)	남(29)	등분야학 교사	80. 5. 27 도청	자상, 총상 , 화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도청항쟁지도부 대변인)
73	민병대	남(20)	양계장 종업원	80. 5. 27 도청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74	김명숙	여(15)	서광여중 3	80. 5. 27 21:40 전대앞 개천변(집앞)	총상	진압이후 희생자
75	송정교	남(50)	공무원	나주 남평 거주인으로 자녀들을 남편집으로 피신시키다가 피습, 통합병원 입원중 5. 24 20:40 사망	자상	21일 이전 부상후 연행, 사망한 것으로 추정
76	양희남	남(30)	석유배달	80. 5. 22. 22:00 통합병원에서 사망	총상	앞의 통합병원 확보작전
77	임정식	남(19)	고교졸업, 무직	80. 5. 22화정동(외숙부 구하러다 피격)	총상	앞의 통합병원 확보작전
78	김경철	남(23)	제화공	80. 5. 18 오후 구타 부상, 19일 03:00 통합병원에서 사망	전신 타박상	최초 사망자
79	김평용	남(17)	사레지오고 2	80. 5. 24 오후 2~3시경 송암동 남선연탄앞에서 총상 부상, 25일 19:00사망	총상, 자상	
80	정지영	남(31)	실내장식	21일 이전 시내 시위중 연행, 전남대 거처 통합병원에서 23일 19:00 사망	타박상, 총상	
81	전재서	남(26)	공원	80. 5. 23 05:20 통합병원	타박상, 총상	
82	왕태경	남(26)	운수업	80. 5. 22 09:00 송하동 남선연탄 앞	총상	송암동 지역 희생자
83	박재영	남(25)	목포조선내화 직원	80. 5. 22 17:30 진월동 인성고앞	총상	송암동 지역 희생자
84	임종인	남(21)	행상	80. 5. 22 17:30 장소미상	총상	
85	조규영	남(38)	벽돌공	80. 5. 22 18:00 내방동 한성아파트 뒤	총상	앞의 통합병원 확보작전
86	함광수	남(16)	미장공	80. 5. 22 17:00 내방동 자택옥상	총상	앞의 통합병원 확보작전
87	김재평	남(29)	완도수협 직원	80. 5. 22 17:50 통합병원 앞	총상	앞의 통합병원 확보작전
88	박종길	남(24)	건축자재공장 공원	80. 5. 26 07:00 통합병원	자상, 총상	
89	김오순	여(57)	무직	80. 5. 22 09:00산수동 집앞 도로상	차량사	
90	황호경	남(63)	상업	80. 5. 21 13:50경 도청앞 자택에서 총상 부상, 18:00 전대병원에서 사망	총상	앞의 21일 도청
91	신원불상	남(4)		80. 5. 27 이전(사체출처:효덕동)	총상	
92	김부열	남(17)	조대부고3	80. 5. 23~24 추정(사체출처:지원동주남마을 뒷산상봉)	총상	
93	최미애	여(23)	주부	80. 5. 21 13:50 전남대앞(중흥동)집앞 골목	총상	21일 전남대앞 희생자 *임심8개월의 임신부
94	김영두	남(17)	샷슈공	80. 5. 22 12:00경 나주	차량사	
95	조행권	남(38)	노동	80. 5. 27 동운동 노상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96	임은택	남(35)	상업	80. 5. 21 20:00경 광주교도소앞	총상	교도소 지역 희생자
97	김상태	남(30)	상업(구멍가게)	80. 5. 23 16:00경 동운동 금호고앞	총상	
98	고규석	남(37)	농업	80. 5. 21 20:00경 광주교도소 앞	총상	교도소 지역 희생자 *앞의 임은택과 같이
99	서종덕	남(18)	행상(영장수)	80. 5. 22 광주교도소 부근	총상	교도소 지역 희생자
100	민병렬	남(31)	택시 운전기사	80. 5. 21 전남대 연행 이후 교도소 앞 노상에서 사체로 발견	(후두부)자상	*전남대 연행자에 대한 단행으로 희생
101	이명진	남(36)	서울대명전자직원	80. 5. 22 광주교도소 앞	총상	교도소 지역 희생자
102	장방환	남(58)	상업	80. 5. 21 전대로 연행, 이후 교도소 앞에서 사체로 발견	타박상	
103	이용충	남(36)	야채청과상	80. 5. 22 광주교도소앞	총상	교도소 지역 희생자

일련 번호	성명	성별(연령)	직업	사망일시 및 장소	사인	비고
104	안두환	남(45)	부산파이프남방	80. 5. 21 전남대앞에서 연행이후 교도소앞에서 시체로 발견	타박상	
105	허 봉	남(24)	이발소 종업원	80. 5. 21 장소불상	(두부)자상	
106	김경선	남(22)	방위병	80. 5. 20 장소불상	타박상	
107	문민규	남(18)	학생	80. 5. 21 장소불상	총상	
108	김함욱	남(16)	종업원	80. 5. 21 장소불상	총상	
109	장복원	남(20)	대한통운운전기사	80. 5. 21 20:00경 송화동 남선연탄	총상	송암동 지역 희생자
110	김용표	남(23)	보경식품 직원	80. 5. 21 15:30 광주여고앞 노상	총상	앞의 21일 도청
111	이종연	남(17)	고입 재수생	80. 5. 21 나주 왕곡면 국도상	차량사	
112	신원불상	남(40가량)		80. 5. 21 장소불상	총상	
113	한영길	남(30)	화천기공 사직	80. 5. 23 장소불상	총상	
114	신원불상	여		80. 5. 24~25 사망추정	총상	
115	유진관	남(22가량)		80. 5. 22 22:30경 전대병원	총상	
116	박세근	남(36)	상업	80. 5. 21 장소불상	총상	
117	신원불상	남(22~23)		80. 5. 21 장소불상	총상	
118	이경호	남(20)	노동	80. 5. 21 장소불상	총상	
119	신원불상	남(23~25)		80. 5. 21 장소불상	총상	
120	정학근	남(30)	폼팔이 노동	80. 5. 21 장소불상	총상	
121	박인천	남(26)	택시 운전기사	80. 5. 21 랍 송암동	총상	송암동 지역 희생자
122	신원불상	남(20~25)		80. 5. 21 장소불상	총상	
123	신원불상	남(25가량)		80. 5. 24 장소불상	총상	
124	이금계	남(29)	현악방 종업원	80. 5. 27 새벽 전남여고 앞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125	염행렬	남(17)	검정고시 수험생	80. 5. 27 새벽 도청후문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126	홍순권	남(20)	재수생	80. 5. 27 새벽 도청앞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127	박진홍	남(22)	표구사 종업원	80. 5. 27 새벽 도청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128	문용동	남(27)	호남신학대 1	80. 5. 27 새벽 도청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129	서호빈	남(27)	전남대 1	80. 5. 27 새벽 도청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130	박명규	남(20)	동국대 1	80. 5. 27 새벽 도청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131	이경연	남(20)	전남대 2	80. 5. 27 새벽 도청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132	김인태	남(47)	농업	80. 5. 20 전남대로 연행 이후 21일 교도소 부근에서 시체로 발견	타박상	
133	장하일	남(38)	페인트공	80. 5. 21 도청앞 총상 부상, 23일 전대병원에서 사망	총상	앞의 21일 도청
134	박금희	여(16)	전남여상 3	80. 5. 21 기독교병원 양림교앞	총상	
135	임수춘	남(38)	상업	80. 5. 20 학운동 집앞에서 구타당하고 부상, 22일 16:30에 전대병원에서 사망	타박상	
136	김상구	남(22)	자개공	80. 5. 21 노동청앞 총상 부상 이후 14:10 전대병원에서 사망	총상상	앞의 21일 도청
137	채이병	남(26)	운전기사	80. 5. 21 14:00장소불상(도청앞추정)	총상	앞의 21일 도청
138	박인배	남(18)	자개공	80. 5. 21 17:00 한일은행 사거리(금남로)	총상	앞의 21일 도청

일련 번호	성명	성별(연령)	직업	사망일시 및 장소	사인	비고
139	양인섭	남(33)	당구장 경영	80. 5. 20 금남로 신한은행앞에서 구타당하고 22일 도청지하실에서 사체 발견	타박상	
140	김만부	남(44)	노동	80. 5. 20 밤21 새벽 신역에서 총상부상입고 23일 기독교병원에서 사망	총상	20일 신역발포 희생자
141	기남용	남(22)	상업(옷가게)	80. 5. 21 도청앞	타박상	
142	이복일	남(28)	오토바이첸타경영	80. 5. 21 새벽(신역추정)	총상	앞의 신역발포 희생자
143	윤형근	남(21)	운전기사	80. 5. 23 18:00 전대병원에서 사망	총상	앞의 도청(추정)
144	임균수	남(21)	원광대 2	80. 5. 21 14:00 도청앞(천일빌딩앞)	총상	앞의 21일 도청
145	선종철	남(44)	부직	80. 5. 23 14:00 지원동집앞(용산부락)	총상	
146	김복만	남(28)	버스 운전기사	80. 5. 21 도청앞(추정)	총상	앞의 21일 도청
147	정찬용	남(29)	상업	80. 5. 21 14:00 기독교병원에서 사망	총상	앞의 21일 도청(추정)
148	전영진	남(18)	대봉고 3	80. 5. 21 13:00 노동청아파트 총상부상 14:00 전대병원에서 사망	총상	앞의 21일 도청
149	김제수	남(25)	건축미장공	80. 5. 21 도청에서 총상부상, 22일 06:00 전대병원에서 사망	총상	앞의 21일 도청
150	전정호	남(55)	중앙고속택시회사 직원	80. 5. 21 저녁학동	총상	21일 공수부대 철수시 희생자
151	조대훈	남(35)	문방구 경영	80. 5. 21 금남로 한국은행 사거리	총상	앞의 21일 도청
152	김완봉	남(14)	부등중 3	80. 5. 21 도청앞	총상	앞의 21일 도청
153	김형관	남(21)	방위병	80. 5. 21 16:00 방림다리 부근(추정)	총상	앞의 21일 도청
154	나종기(안규)	남(27)	노동	80. 5. 21 15:00 금남로 제일은행앞	총상	앞의 21일 도청(추정)
155	김영철	남(24)	부직	80. 5. 21 장소불상	총상	앞의 21일 도청
156	박창권	남(14)	승의중 2	80. 5. 21 15:00 도청앞	총상	앞의 21일 도청
157	김명철	남(65)	상업	80. 5. 21 이전 월산동 대성국교(집 부근)앞에서 사망	(좌전두부) 타박상	
158	이성자	여(15)	부모포목상일도움	80. 5. 21 14:00 금남로 동구청앞	총상	앞의 21일 도청
159	김경환	남(19)	제수생(점원)	80. 5. 20 21:00 전대병원부근 로터리	자상,타박상, 총상	
160	김성근	남(24)	복공	80. 5. 27 03:10 광주공원부근 무진중학교 우체통 골목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161	김재화	남(25)	회사원	80. 5. 20 23:00 신역광장에서 총상, 노광철의원에서 사망	총상	앞의 신역발포 희생자
162	손광식	남(21)	방위병	80. 5. 22 19:30 화정동 수미다실앞	총상	22일 통합병원 확보작전
163	신원불상	남(20~30)		80. 6. 2 주민신고로 지원동 주남마을 뒷산에서 사체 발굴	총상	*23일 주남마을 버스충격 사건시 생존 부상자로 다시 사살당한 사람으로 추정
164	신원불명	남(30가량)		위와동일	총상	위와동일
165	최열락	남(27)	운전(설비공사)	80. 5. 21 20:00 교도소앞(80. 6. 2 주민신고로 광주교도소앞 야산에서 사체발굴)	총상	교도소 지역 희생자
166	김종철	남(17)	자개공	80. 5. 27 도청	총상	27일 진압작전 희생자
167	강대일	남(30)	페인트공	80. 5. 23 시외곽에서 총상 부상, 80. 8. 23 사망	총상	
168	양관근	남(15)	승의실고 1	80. 5. 21 14:00경 도청앞(추정)	총상	앞의 21일 도청
169	김제형	남(18)	구두닦이	80. 5. 20~21 시내	총상	

일련 번호	성명	성별(연령)	직업	사망일시 및 장소	사인	비고
170	전정태	남(26)	경희대 한방과 청강생	80. 5. 21 12:00경 도청앞 부등맨션 자택 계단	총상	앞의 21일 도청
171	김중식	남(41)	운전기사	사망일시 및 장소불상	총상	
172	김인기	남(21)	방위병	80. 5. 23 효덕동 인성교앞 삼거리에서 사체발견	총상	
173	유복용	남(31)	농업 및 택시운전	80. 5. 20. 19:00경 남동 천주교회앞 노상에서 연행, 5. 23. 22:00경 상무에서 석방, 83. 11사망	(고문·구타) 후유증	
174	김형진	남(29)	상업(가축매매)	80. 5. 21 이전 자상입고 연행, 통합병원 후송, 8일퇴원, 83. 11. 4.사망	(자상)후유증	
175	이갑열	남(26)	서비스업	80. 5. 30 상무대 연행, 구속, 훈방, 84. 1. 24 자살	후유증(자살)	
176	정종월	남(19)	자동차정비공	80. 5. 30 월산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구타연행, 교도소→통합병원 후송 후 석방, 85. 4. 20 전대병원에서 사망	후유증	
177	이요승	여(18)	수피아여고 2	80. 5. 21 이전 구타당하고 집으로 귀가, 80. 5. 21 사망	타박상	
178	박완주	남(41)	상업	80. 5. 21 이전 광주공원에서 구타연행, 상무대 수감중 80. 6. 13 훈방, 80. 6. 23 적십자병원 입원중 80. 8. 20 사망	타박상	
179	김제식	남(18)	무직(종졸)	80. 5. 19 공용터미널에서 구타연행, 상무대 수감후 석방 84. 12. 17 사망	구타(후유증)	
180	안병일	남(25)	광주보건전문대2	80. 5. 18 15:00경 전대부근에서 부상, 전대병원후송, 이날 19:00경 사망	타박상	
181	이승현	남(28)	노동	80. 5. 21 이전 구타, 연행, 상무대에서 80. 6. 10 훈방, 정신질환, 84. 12. 27 사망	(구타)후유증	
182	양희영	남(19)		80. 5. 22 백운동 철로변에서 사체 4구중 발견	총상	
183	양희래	남(16)			총상	양희영의 동생
184	박종화	남(20)		80. 5. 20 귀가중 공설운동장에서 연행, 상무대 훈방후 정신질환, 83. 6. 30 사망	후유증	
185	박제구	남(29)	건축업	80. 5. 21 22:10경 효천과출소 부근에서 자상당하고 피신, 84. 4. 26 사망	(자상)후유증	
186	신서운	여(38)	연탄배달	80. 5. 22 우산동 서방 서거리(교도소부근)에서 후두부 관통상 입고 사망	총상	
187	김계홍	남(19)		80. 5. 24 백운동에서 총상부상, 81. 3. 3 전대병원에서 사망	총상	
188	김점열	남(30)		80. 5. 22 쌍촌동 호남신대 앞(통합병원부근)에서 구타·연행, 상무대→통합병원후송, 석방후 정신이상, 81. 4 사망	후유증	
189	강종환	남(53)		80. 5. 20 21:30 전남여고 후문에서 자상입고 집으로 후송도중 사망	자상	
190	박주삼	남(19)		80. 5. 22 송암동에서 총상부상, 적십자병원 입원, 81. 8. 2 사망	총상	
191	홍태환	남(51)		80. 5. 20 MBC앞에서 구타·연행 5. 21 귀가 81. 4. 18 사망	후유증	

일련 번호	성명	성별(연령)	직업	사망일시 및 장소	사인	비고
192	진광수	남(62)		80. 5. 19 16:00경 산수동 5거리에서 학생 구타연행에 항의하다 구타당하고 21일 새벽 사망	타박상	
193	김용남	남(43)	호남전기화물직원	80. 5. 18 대인동 한미쇼핑 옆 골목에서 구타당하고 치료중 80. 6. 12 사망	타박상	
194	오중원	남(21)		80. 5. 21 이전 연행당했다가 80. 8 석방 85. 5. 5 사망	후유증	
195	조강일	남(18)	진흥고 3	유인물제작 살포 혐의로 수배중 80. 7. 16 80. 8. 2 석방, 86. 10. 16 사망	(고문·구타) 후유증	
196	장경희	여(18)	전남대 1	폭행으로 정신이상, 87. 1. 30 사망(자살)	후유증	
197	휴선장	남(20)	택시 운전기사	총기탈취혐의로 수배중 80. 7. 14 분신, 조선대입원 7. 24 15:00 사망	분신자살	
198	손용직	남(54)	상업	딸의 사망, 아들의 부상에 충격 81. 9 사망	충격사망	앞의 54 손옥례의 부친
199	정창만	남(18)	인성고 3	80. 5. 20 백운동에서 구타당하고 부상 81. 10. 16 사망	후유증	
200	박남초	여(42)		80. 5. 23 도청앞에서 아들 시신 인고 충격실신, 81. 10. 16 사망	충격사망	앞의 63 이성경의 모친
201	김호우	남(55)		아들 찾으러 나갔다가 구타당하고 부상, 80. 5. 24 15:00 사망	타박상	
202	김연호	남		80. 5. 18 16:00 금남로5가 기아서비스 빌딩 3층 당구장에서 구타당하고, 실신상태로 연행, 통합병원 후송 후 5. 21 훈방, 정신불안정, 87. 5. 30 사망(자살)	후유증	
203	김태량	남(39)	통일당 상무위원	80. 5. 18 17:00경 광주은행앞 구타당하고 상무대 연행, 85. 4. 10 사망	후유증	
204	정철석	남(19)	계수생	80. 5. 24 인성고~송암공단 사이에서 총상 부상, 정신질환 사망	총상(후유증)	
205	남승우	남(22)	무직		타박상	
206	최득춘	남(52)	소개업		총상	개인적 원한 관계 피해자
207	김소래	여(38)	무직		총상	개인적 원한 관계 피해자
208	최 춘	남(7)	국교생		총상	개인적 원한 관계 피해자
209	한용덕	남(30)		80. 5. 21 도청앞에서 총상부상, 80. 9 전대병원에서 사망	총상	앞의 21일 도청
210	이순진	남(19)		80. 5. 21 김정형외과 입원 사망	총상	
211	안병득	남(22)	무직		차량사	주소지 : 광주시 삼각동
212	박옥심					주소지 : 광주시 송암동
213	김세근					주소지 : 광주시 중흥 1동
214	유원호					주소지 : 광주시 지산동
215	최기열					주소지 : 광주시 풍향동
216	이금태					
217	안태홍					주소지 : 광주시 월산4동
218	임병화	남(23)	조선대생		총상	주소지 : 광주시 신안동
219	김인래					주소지 : 해남 산이부락
220	이요나					망월묘역

일련 번호	성명	성별(연령)	직업	사망일시 및 장소	사인	비고
221	이민호	남(21)	식당 근무			주소지 : 광주시 학동
222	이수현	남(29)				주소지 : 광주시 학2동
223	김선호	남(27)		80. 5. 21 도청앞 자택에서 총상 부상 당하고 사망상태로 전대병원 도착	총상	주소지 : 광주시 무등맨션 402호
224	김경래	남(18)				주소지 :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225	기정재	남(27)				주소지 : 광주시 대의동
226	김영곤		전남대 2			주소지 : 여주시 수정동
227	최철호		전남대 3			주소지 : 여주시 공화동
228	유복동	남(36)	회사원	80. 5. 21~6. 20 입원, 사망	총상	
229	김치녀	여		5. 24.~6. 20 입원 사망	총상	
230	박귀주	여(49)	상업	5. 21~6. 7 입원 사망		
231	신행균	남(38)	무직	5. 21 사망		
232	윤성균	남(28)	회사원	5. 21 사망		
233	정민국	남(23)		5. 22~5. 27 입원, 사망		
234	강영훈	남(19)		5. 25 입원, 사망		
235	김옥단	여(74)	무직	복부관통상 사망	총상	